

[발제 1]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발제문

- 지 옥 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과 교육의 관계

<세계미래보고서 2055>(박영숙, 제롬 글렌, 2017)에서는 전 세계 3,500여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불과 30여년 후의 미래 세상은 공상과학 만화의 장면들 같다. 예를 들면 상호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이 아닌 가상 텔레파시(virtual telepathy) 기술로 머릿속의 생각을 타인의 머릿속으로 바로 전송한다. 그런가 하면 양자 컴퓨터의 개발로 현재보다 수 조배 빠른 컴퓨터를 이용한다. 생명체의 순간이동도 가능해진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하다가 그 보고서에서 예전 30년 전에 예측되었던 기술,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세 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 출생’ ‘인간과 기계의 연결’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 등 당시 꿈같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또 30년 후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야말로 과학의 원더랜드(wonderland)가 될 것이다. 당연히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며, 특히 창의성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빈부격차 심화,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및 갈등 문제 등으로 ‘과연 지구 생태계가, 인간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까?’ 하는 세계적 우려 또한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 2035년 ‘돌아올 수 없는 선’ 넘어(news-one 2018.09.01.)”와 같은 뉴스 기사는 그런 우려를 잘 보여준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해양역학 교수인 헨크 데이크스트라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단호하게 대처(특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나가야 함)하지 않으면 인류는 2035년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가공할 만한 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UN은 2002년에 UNDESD(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05-2014)를 선포하고 유네스코를 그 선도 기관으로 하면서 실행을 독려했으며, 그것이 끝난 현재는 GAP on ESD(Global Action Pla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2019)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DESD나 GAP on ESD에서 강조하는 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 동력은 '교육'이라는 점이고, 동일 맥락에서 여러 단체나 학자들은 유아기부터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조부경, 서현정, 2015; Davis, 2015; Ji & Stuhmcke, 2015; UNESCO, 2014; OMEP, 2018)하고 있다.

미래를 '눈부신 과학의 원더랜드' 와 같이 낙관적으로 예측하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관적으로 예측하건 교육에 거는 기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크다. 3-5세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발제 글도 이런 맥락에서 작성된 것이다. 미래 주역인 유아들이 지금과는 놀랍도록 다를 미래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삶'을 평생에 걸쳐 살아가도록 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이를 3-5세(장기적으로는 0-5세)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누리과정도 숙고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II. 누리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2011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 유아를 위한 공통 과정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이 공포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에는 3-5세 누리과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몇 달 만에 교사용 지도서가 제작되

어 2013년 초 전국에 배포되었으며, 2013년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적용되고 있다.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통합이라는 난제를 ‘누리과정’으로 풀어내고 그에 더해 총 32책에 달하는 교사용 지도서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그와 같은 단기간의 성과 이면에는 당연히 그 서두름만큼 개선 사항 또한 내포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글에서는 누리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선행 연구 검토 결과에 필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누리과정의 성격, 총론, 각론, 누리과정과 교사용 지도서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누리과정의 명칭과 성격, 구성방향: 적절하게 규명되어 있는가?

먼저 명칭 관련이다. 누리과정은 영어로 쓰면 Nuri curriculum 이다. 이를 번역하면 ‘누리 교육과정’이지만 우리는 그냥 ‘누리과정’이라고만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측 조정을 거쳐 통합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란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누리과정’에 교육과정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즉, 누리과정은 3-5세를 위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명칭이면서 동시에 영유아의 보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정책의 이름으로 혼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비 지원이라는 각각 별개의 정책임에도 한 가지 명칭 안에 그 두 의미를 함께 엮어 넣었기 때문에 의미 혼란 등 문제가 있다(이경화, 2016). 따라서 이 둘에 대해 별도의 명칭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유아의 경우 적절한 보호까지도 광의의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때 현재의 ‘누리과정’은 ‘누리 교육과정(또는 3-5세 교육과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성격 관련이다.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누리과정 자체 문서에는 그 성격 규명이 빠져 있다(이승미, 2015), 그 전 교육과정인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유치원 수준의 교육과정’과 같이 3가지 층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점은 이미 1992년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명시된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 법규에 따라 고시된 국가 수준의 기준’이라는 성격이 초중등 교육과정의 경우 그때부터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까지 그대로 유지(온정덕, 2015)돼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역시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이라는 성격을 문서 안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누리과정 구성방향 관련이다. 현재 누리과정은 7가지로 그 구성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가(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나(자율성과 창의성, 전인 발달), 다(사람과 자연 존중, 우리 문화 이해)는 교육을 통한 지향점으로서의 중점 사항 관련이고, 라(만 3-5세의 발달 특성 고려), 마(5개 영역 중심), 바(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는 교육과정 구성 시 중점 사항이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므로 이들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리라고 본다.

연관하여 다른 한 가지,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교육과학기술부, 2008, 28)은 교육과정의 기초로서 개정의 기본 방향 중 제일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경우 세 번째로 그 순서가 밀렸을 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와 같이 한 문장 안에 ‘우리 문화 이해’까지 같이 붙여 놓아 예전에 비해 ‘사람과 자연 존중’ 가치관이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덧붙여 ‘인간과 자연 존중’보다 포괄적 용어인 ‘지속가능발전(또는 지속가능성) 지향’ 가치관(지옥정, 2014; Inoue, 2015; OMEP, 2018; UNESCO, 2014)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전 세계 유아교육계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또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은 근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2009년에 첫 관련 논문이 나온 후 해가 지날수록 연구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조부경, 서현정, 2015), 이런 맥락에서도 ‘지속가능발

전’ 또는 ‘지속가능한 삶’을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누리과정의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제시는?

진술한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교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 행정,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지도 자료집 등의 교재 개발, 취원, 교육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의 집행 근거(교육과학기술부, 2008)로서 그 존재감은 실로 막강하다. 즉, 이런 모든 영역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우선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향점, 즉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관련하여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홍익인간’이란 교육 이념 아래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핵심 역량을 6가지, 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상정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런데 누리과정의 총론(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역량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궁극적 지향점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들(문무경, 배윤진, 송신영, 2015; 이승미, 2015; 이경화, 2016) 역시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김미애, 나인선(2018)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문제 뿐 아니라 철학적 관점에서 ‘왜’ 가르치는가, 즉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필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왜’ 또는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중등 교육과정과 동일해야 하는가, 아니면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국가 수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더군다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중시한다고 볼 때 다를 수 없다고 본다. 이번과 같은 경우 초중등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보다 먼저 개정되었기 때문에(대체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이 먼저 됨) 유아교육과정도 이를 따라야 하는가 논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유아와 초중등 교육과정이 같은 시기에 함께 이루어지면서 어떤 인간상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체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핵심역량’까지 초중등과 동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표 1과 같이 모두 동일한 핵심역량을 제시하되(은정덕 외, 2015, 105-106), 다만 학교 급별로 강조하는 목표만 다르다. 필자의 의견은 현재 시점에서는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그대로 따르되, 3-5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표 1> 교육적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급별 목표		
		초	중	고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초	중	고
자주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자기 관리 역량 ·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를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능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	나.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양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더불어사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참고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¹⁾’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과 동일하였다.

3. 누리과정의 각론: 현재 제시된 내용 수준과 정도는 적합한가?

누리과정은 5개 내용 영역에 따라 ‘내용 범주’와 ‘내용’까지는 3~5세 공통이고 ‘세부내용’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 사항을 제안한다. 그 첫째는 연령별 세부 내용의 적합성이다. 세부 내용 중 어떤 것은 그야말로 ‘세부적’으로 제시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이나 유아교사들에게 분명한 기준 뜻대로서보다는 난해한 이정표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에피소드 1: “그러니까 후배 여러분들은요. 누리과정 있죠? 그 내용, 세부내용 있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해요. 저는 너무 안 외워서여 여러 방법을 썼어요. 제 목소리로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녹음한 다음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듣고 또 들었는데요.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내용 범주로 ‘신체인식하기’가 있잖아요? 그 내용 중 하나가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잖아요?! 이게 다시 세부 내용에서 3세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4세는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5세는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한다.’ 거든요. 그게 그거 같지요? 이런 거는 진짜 안 외워져요. 그럴 때는요, ‘감차경차 구대사차’ 이런 식으로 중요한 앞 글자한개 씩을 따서요. 리드미컬하게 노래로 만들어 외우면 나름 효과 있어요.”

대학 4학년 때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2년차 교사가 모교에 와서 자랑스럽게 후배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고군분투 임용고시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그게 그거 같지만 무조건, 어떤 방식을 써서건 외우라는 것이다. 창의성을 강조하던 교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1) 추구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교육과학기술부, 2008)이었다.

물론 누리과정 개발 당시 연구진의 의도는 교사들에게 연령별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누리과정의 연령별 세분화는 그 내용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구분해서 유아들에게 교육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격인 ‘기본적인 지침’이란 점에서 볼 때도 연령별로 너무 세부적인 내용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일례로 자연탐구 영역-과학적 탐구-자연현상 알아보기에서 3세의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와 4세의 “날씨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5세의 “날씨와 기후 변화 등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굳이 구분이 필요할까 싶다. 어떤 연령이든 교사가 날씨와 기후, 또는 자연현상까지 연결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경화(2016)는 누리과정이 연령별로 내용 요소를 과잉 계열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령별 내용의 논리적 계열화를 추구하다 보니, 무리하게 분류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교육내용의 연령별 수준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령별 구체화를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내용 축소와 지나친 계열화 지양을 제안한다. 즉, 내용에 따라 3, 4, 5세 구분도 두지만 연령별로 구분하는 비율은 지금보다 대폭 줄이고 3-4세 공통내용, 4-5세 공통내용, 3-5세 공통내용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내용의 난이도와 내용영역에 따른 편중 문제이다. 먼저 내용의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용은 초등교과(예: 3~4학년 과학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높게 설정)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문무경, 배윤진, 송신영, 2015)되고 있다. 누리과정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지도서의 활동에서도 난이도가 너무 높은 개념이 교육목표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작업 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같이 놓고 세밀하게 비교, 분석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언하고 싶은 것은 ‘느낀다.’ ‘경험한다.’ ‘관심을 갖는다.’ 와 같은 정의적 측면의 내용만이 난이도가 낮은 것(그래서 유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아기에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개념의 경우, 정확하게 ‘안다.’ 이해한다.’ 등과 같이 기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또 한 가지 문제는 5개 내용 영역이 비슷한 비중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이재창, 홍후조, 김기은, 2017). 관련하여 이재창 외(2017)는 누리과정 각론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수록된 것은 신체운동·건강 영역(내용 범주 5개, 내용 14개, 세부내용 96개)인 반면, 예술경험은 가장 적게 내용이 제시(내용범주 3개, 내용 10개, 세부내용 57개)되어 있다고 분석해 놓았다. 물론 잣대로 재듯 모든 내용 영역을 내용이나 세부내용 개수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5개 내용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꾀하는 것이 목표라면, 현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내용 편중 현상은 어느 정도이며 이는 용납될 정도인지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4.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

가. 범교육과정적 주제: 넣어야 하는가?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편성과 운영 관련하여 한 가지 짚을 문제는 범교육과정적 주제에 대한 것이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범교육과정적 주제’²⁾가 도입된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외형적 연계까지 고려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때부터이다.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교육과학기술부, 2008, 76)을 보면 “범교육과정적 주제는 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유치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전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당시 범교육과정적 주제의 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수인 33개 주제(초·중등에 비해 ‘지속가능발전교육’, ‘논술교육’만 빠져 있음)였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교육’, ‘경제 교육’ 등이 그에 속한다.

2) 영어로는 동일하게 cross curricular theme 이라고 기술하나 유치원은 범교육과정적 주제(교육부, 2008, 76),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함.

5세 누리과정에서는 30개의 범교육과정적 주제가 제시되었는데 이때 ‘환경교육’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녹색성장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적 방안이라고 성격 규명됨)이 들어갔다. ‘민주 시민 교육’, ‘창의·인성교육’, ‘녹색성장교육’, ‘경제교육’ 등등의 순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후 3-5세 누리과정에서는 따로 범교육과정적 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한편, 2012년에는 3-5세아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교육과학기술부, 2012)을 개발하여 2013년 초에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였고,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유치원들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관련 범교육과정적 주제를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3-5세 누리과정에는 범교육과정적 주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관련 자료집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어 범교육과정적 주제가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에 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97년의 초등 7차 교육과정부터 범교과 학습주제를 제시(‘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등의 순으로 16개 제시)하였다. 이후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요구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전달되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5개 주제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교육’, ‘녹색교육’, ‘독도교육’이 더 들어와 39개로 늘어났었다. 현재 2015 개정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그 수가 대폭 줄어 10가지 주제(교육부, 2015)가 제시되었고, 그 중 하나가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하여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누리과정 개정 시 범교육과정적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경우 생활주제를 통해 5개 내용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미 생활주제 자체가 범교육과정적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범교과 학습주제(또는 범교육과정적 주제)의 성격은 교과 내용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우나 시대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꼭 다룰 필요가 있는 주제(또는 가치)들을 제시한 것이었으므로 필자는 범교육과정적 주제의 별도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이미숙(2009)은 “이제 범교과 학습은 전체 교육과

정(whole curriculum)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학습자들을 광범위한 세계와 연계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이미숙, 2009: 3)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 범교육과정적 주제를 제시한다고 할 때 그 주제들에 대한 적합성 검토이다. 일단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에서는 그 무렵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범교과 학습주제들을 거의 그대로 제시하였다. 그렇다고 볼 때 누리과정 개정 시 범교육과정적 주제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2015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0개 범교과 학습주제(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가 거의 그대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과연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같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나로 묶고, 이를 다른 9가지 주제와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틀, 또는 지향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병렬적 제시는 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교육하면서 조금 더 덧붙여야 할 특정 주제로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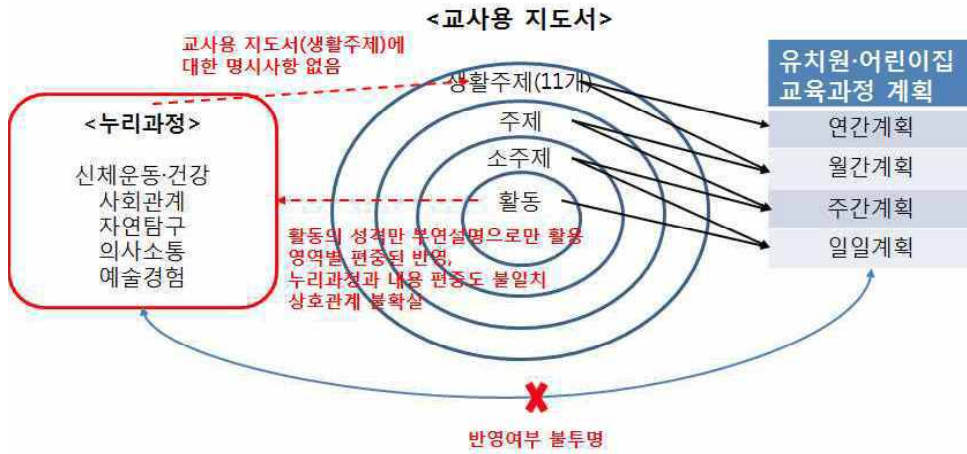
셋째, 둘째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범교육과정적 주제 수의 축소를 제안한다.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 수를 이전 교육과정에서보다 훨씬 줄인 10가지로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도교육은 시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이겠으나 범교육과정적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호주의 기초학년(만 5세반~12학년까지의 교육과정 개발을 책임진 곳인 ACARA(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Reporting Authority: <http://www.acara.edu.au>).3)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한 새 교육과정에서 범교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 3가지였으며, 그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이었다(지옥정, 2011). 다시 말해 개정 누리과정에서 범교육과정적 주제를 제시하게 된다면 유아 수준에 맞추어 그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 누리과정과 교사용 지도서의 관계: 그 관계 및 지도서 활용은?

이경화(2014)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학교 수준에서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교육과정 구성 및 실천의 절대적인 표준도 아니며 최선도 아니라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누리과정을 풀어내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예시가 될 수 없다는 주장(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을 보면 유아교사들에게 교사용 지도서는 마치 국정교과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이경화, 2017), 그런 만큼 어떤 자료보다도 우선적 참고자료이자 교사들의 의존도도 상당히 높다. 다음 에피소드를 한 번 보자.

에피소드 2: 유치원 평가를 위해 교육계획안 검토를 하는데, 11월의 생활주제가 ‘환경과 생활’이었다. 이에 따른 11월 한 달간 소주제로 ‘물과 우리생활’, ‘돌흙과 우리생활’, ‘바람·공기와 우리생활’, ‘빛과 우리생활’, ‘소리와 우리생활’ 순으로 다룬 것으로 되어 있었다. <환경과 생활> 교사용 지도서의 손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에게 확인 차 묻는 과정에서 다른 생활주제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았다. 물은 11월보다 여름에 다루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고 교사에게 질문하니 보통 생활주제를 한 달에 이어서 그대로 다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현장교사들에게 지도서는 교육과정 문서와 동격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그럴 때 교과서처럼 그대로 적용한다(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문제는 이와 같이 유아교사들이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과정 계획이나 운영은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이 아닌, 생활주제를 토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서상으로는 누리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주제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재창, 홍후조, 김기은(2017, 266)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5개 영역, 생활주제, 실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계획 간의 관계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제안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이다. 아무리 교사들에게 교사용 지도서는 그저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주어도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인된, 가장 의존할 만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보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들 간에 수준 차가 크다는 지적에서부터 내용 편중 현상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에서는 신체활동·건강 영역 내용 양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가장 적게 제시(이재창 외, 2017)되었다던가 하는 식이다. 지도서에 제시된 누리과정 관련 요소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도 분명 있겠으나, 앞으로는 적어도 누리과정 내용 영역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교사용 지도서에 실제로 고르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의 기관 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가장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다양한 수업 운영 방식의 제시이다. 현재 교사용 지도서에는 생활주제 주제망을 제시하고 난 후 각 소주제에 대한 주간 교육계획안과 일일교육계획안의 형태만 예시해 주고 있다. 교사들이 다른 식으로도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평가의 준거까지 월안-주간-일안의 사전 교육계획 만이 정답인 것처럼 되어 있어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이론적으로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운영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교육계획안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이재창, 홍후조, 김기은, 2017)고 하지만. 기관 평가까지 더하면서 사실 상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못하는 식이다. 당연히 교사는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을 자기 지역에 맞게, 더 나아가서 자기 반 유아들에게 맞게, 그 안에서도 시시로 변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교사용 지도서에서,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교사용 지침서에서 다양한 수업 운영 방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업처럼 준비단계에서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계획안과 활동예상안은 작성하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수업의 주체가 되어 활동해 가는 가운데 활동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심화, 확장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만일 교육과정 개정에서 내용을 지금보다 훨씬 축소 제시한다면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편성,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가 프로젝트 뿐 아니라 유형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 맥락에서 박창현 외(2016)는 누리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유아교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활동 외에도 그림책중심, 상황중심, 신문기반, 역량중심 교육내용 통합 등도 예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덧붙여 교사가 주체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교사 연수도 제안하였다.

필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사례와 같이 전문가가 일정 기간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를 제안한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약 4주 정도: 1주일에 1회 3시간 정도)동안 전문가인 교수(들)와 동료 교사들이 함께 모여 프로젝트 관련 정보와 아이디어를 나누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함께 고안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습공동체에서 전문적, 정서적, 실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교사는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과정 중 유아들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해 나가면서 교사, 유아 모두 유능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이런 행복감이 다시 성취를 유발하는 선 순환적 구조(최인철, 2018)로 나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학습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적인 활동이며, 교육과정은 그 핵심이다. 누리과정 개정 작업은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인간상을 지향해야 하는가?’와 ‘유아에게 무엇이 의미 있고, 적합한 것인가?’를 동시에 고려하며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 결과로 교사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기초하여 좀 더 주체적으로 수업을 편성, 운영할 수 있고, 유아들은 즐겁게 노는 한편, 교사와 함께 수업의 주체가 되어 몰입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 총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53호.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2]
- 김미애, 나인선 (2018) 유아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연구동향 분석: 2007~2017년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0(1), 57~82.
- 문무경, 배운진, 송신영 (2015). 「3-5세 누리과정」 개편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순경 (2006). 한국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육과정 연구, 24(2), 159-182.
- 박영숙, 제롬 글렌 (2017). 세계미래보고서 2055. 서울: 비즈니스 북스.
-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방안(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5).
-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

- 과정 운영 개선 방안(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18).
- 은정덕, 김정자, 박희경, 홍은숙, 황규호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초등학교) 개발 연구. 교육부.
- 이경화 (2014).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기관 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비판적 탐색. *한국교육*, 41(2), 107-137.
- 이경화 (2016). 3-5세 누리과정의 한계와 유아교육자의 자세.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1-23.
- 이미숙 (2009).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교사교육전문가의 인식 분석. *범교과 학습의 체계방안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ORM 2009-19), 3-41.
- 이승미 (2015).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533-551.
- 이재창, 홍후조, 김기은 (2017).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5개 영역 및 교사용 지도서 생활주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4), 255-274.
- 조부경, 서현정 (2015).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5(6), 241-269.
- 지옥정 (2011). 퀸즈랜드 주를 중심으로 한 호주 유아기 환경교육의 맥락적인 배경 및 특성 고찰. *한국교육*, 38(3), 53-75.
- 지옥정 (2014). *환경기념일로 풀어본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서울: 창지사.
- 지옥정 (2017).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 서울: 창지사.
- 최인철 (2018). *굿라이프*. 서울: 21세기 북스.
- Davis, J. M. (2015). *Young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Early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2nd ed.).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oue, M. (2015). 일본의 유아기 환경교육에 대한 관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고. In J. Davis & S. Elliott (Eds.),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아교육연구[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p.118-137). (지옥정, 허미화, 정미라, 백은주 역). 서울: 창지사. (원전 2014 출판)

- Ji, O., & Stuhmcke, S. (2015). 프로젝트 접근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아교육’: 한국과 호주의 사례, In J. Davis & S. Elliott (Eds.),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아교육연구*[*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p. 158-179). (지옥정, 허미화, 정미라, 백은주 역). 서울: 창지사. (원전 2014 출판)
- Katz, L. G., Chard, S. C., & Kogan, Y. (2014). *Engaging children's minds: The project approach* (3rd ed.). Santa Barbara: Praeger.
- OMEP (2018). 70th OMEP World Assembly and Conference Theme: Condi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A found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https://konference2018.omep.cz/home>
- UNESCO (2014). Shaping the future we want: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Final Report.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03/pdf>